행복한 책읽기

르 클레지오 '황금 물고기' 〈문학동네 刊〉

생명력이란 '생물체가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힘'을 말한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 책은 아프리카 출신의 라일라가 예닐곱 살 때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어 모나코로 팔려간 후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곳을 떠돌다가 마침내 아프리카로 가서 자신의 고향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납치로 시작된 인생이다 보니 생의 순간순간이 올가미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올가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라일라의 질척한 삶과 만나야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전혀 다른 생명력을 보여준다. 라일라는 세상 곳곳에 쳐진 올가미를 만날 때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피한다. 피신처라고 해서 뭔가 안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일라는 아프리카에서 암몬에는 그것을 얻기 위한 온갖 추악함이 배태되어 있다. 세속적 가치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추악함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순수한 피가 흐르고 있는 라일라는 그럴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황금물고기였던 라일라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명예와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표류했던 것은 자신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고향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생의 근원으로의 회귀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는 것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상황에 몸을 맡긴 채 누군가가 구해줄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한다. 그러면서도 올가미가 가득 찬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듯 그녀의 생명력은 자유로운 영혼과 세상을 향한 천진성이다.

이 소설은 얼핏 보면 거친 세파 속에 던져진 한 여인의 삶을 통한 존재 찾기 쯤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명화된 세상에 내던져져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생의 근원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저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라일라에게 납치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문명으로의 이동이다. 문명은 화려하다. 화려함 속조개의 화석만큼이나 오래되고 단단해 보이는 할랄 족의 늙은 여인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떠나왔던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된다. 그곳에서 라일라는 '바닷물에 손을 담그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강의 물을 만지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사막 먼지에 손을 올려놓으며 나는 내가 태어난 땅을 만진다. 내 어머니의 손을 만진다.'고 말하며 자신의 표류를 끝낸다.

빌랄 족인 라일라가 할랄 족의 늙은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고향 찾기를 끝내버리는 것은 일종의 화해다. 바다를 거슬러 가면 강물이 나오듯, 사막의 먼지가 아프리카 곳곳을 떠돌아다니듯 결국 생의 근원인 자연 속에서는 모든 분쟁을 떠나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다.

라일라는 자신을 납치했던 인신매매범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나 정 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2013 문화계 결산 ③ 문학·문화재

빛고을 문학관 부지 적정성 논란… 후보지 '백지상태'로

조정래·정유정 작가 신작 돌풍… 전남대 '한책읽기 운동' 전개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지역 고대문화 조명… 환벽당 명승 지정

관람객들이 지난 11월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 전시실에서 영산강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옹관 등 유물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학=올해 지역문학계 최대 이슈는 빛고을 문학관(이하 문학관) 부지 선정 문제였다. 건립후보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적정성 논란은 건립부지 건을 '백지상태'로 하고 광주시에 전권을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문학관 건립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시는 당초 2015년까지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선정 업무를 건립추진위에 위임했으며, 추진위는 5월 명성예식장을 건립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황하택 건립추진위원장이 후보지로 선정된 명성예식장 소유자에게 기금을 요구하고, 결정을 번복하는 주장을 펴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광주민예총과 광주전남작가회의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시는 동구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물색한 뒤 적절한 여론 수렴을 거쳐 건립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광주 출신 다형 김현승(1913~2013) 시인 탄생 100주년 되는 해였다. 다형기념사업회는 남구 양림동에서 다형의 대표작 '절대고독'과 시인의 얼굴이 새겨진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고 대표시 낭송, 학술토론회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는 송수권 시인 등 중견 문인이 유수의 문학상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이 시집 '퉁'으로 제5회 구상문학상(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으며 조선대 문창과에 재직 중인 이승우 작가는 '지상의 노래'로 동인문학상(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새롭게 신설된 제1회 KBS 김승옥문학상(상금 2000만원)은 이기호 소설가(광주대 문창과 교수)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이 작가는 소설집 '김박사는 누구인가?'로 첫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그동안의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박두규 시인 '두텁나루 숲, 그대'(문학들), 정강철 소설가 '수양산 그늘'(문학들), 조성국 시인 '둥근진동'(도서출판 애지)이 문학나눔이 주관하는 2013 상반기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됐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현대시조 거장 정소파 시조시인이 향년101세로 별세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었다. 고인은 1930년 18세의 나이에 '개벽'에 '별건곤'이,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설매사'가 당선돼 작품활동을 했다.

전남대 한책읽기 운동 '한톡'은 지역 독서 운동을 견인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전남대가 올해 실시한 범시민독서운동 '한톡' 행사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 책을 읽으며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가자들은 투표를 통해 선정된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박석무 역)와 동반도서를 읽으며 공통의 문화를 나누는 뜻 깊은 체험을 공유했다.

출판 문학계의 핵심 키워드가 '이야기의 힘'이었다는 데서 보듯 올 한해 소설의 약진은 눈부셨다. 그 가운데 순천 출신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와 '7년의 밤'의 함평 출신 정유정 작가의 신작은 지명도 만큼이나 적잖은 위력을 발휘했다. 100만 부를 돌파한 조정래 '정글만리'(3권·해냄)와 20만부가 판매된 정유정 '28'(은행나무)은 역동적이면서도 치밀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았다.

◇문화재=지난달 22일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남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확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나주박물관은 전남지역에 세워진 최초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이다.

나주박물관은 영산강유역에 남아있는 선사와 역사시대의 문화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역할을 맡게 돼 지역 고대문화 조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박물관 개관으로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이 발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지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광주에서는 환벽당(광주시기념물 제1호)이 지역 문화유적 중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된 것도 뜻깊었다.

문화재 발굴 성과도 두드러졌다. '고흥 야막리 야막고분(野幕古墳·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소재)'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출토유물로는 중국제 청동거울, 왜계 철제 갑옷과 투구, 검(劍) 등 무기류 등 150여 점이 쏟아져 나왔다.

야막고분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유물이 많이 발굴돼 당시 고흥지역 연안항로를 통행한 교역 주체들의 세력과 문화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됐다.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가 발굴한 나주 향토문화유산 제13호인 정촌고분(丁村古墳·나주시 다시면 복암리)은 나주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영산강 유역 고분 중 최대 규모인 방대형(方臺形·네모진 평면에 봉분 윗면을 편평하게 만든 고분)이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동동

www.현대미술가회
26일부터 갤러리 D

한해를 새로운 시선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약하는 전시가 열린다.

www.현대미술가회는 26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광주시 동구 갤러리 D에서 '동동동'전을 연다.

전시제목에 등장하는 '동'은 한자 東(동녘 동)과 동(動·움직일 동)에서 따온 것으로 해가 뜨는 곳,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은 한지, 철사,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로 자신의 시선을 드러낸 작품을 모았다.

류현자씨의 작품 '사모곡'은 분채로 한지에 버선을 그려넣어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박수옥씨는 '동동동' 연작에서 수수하고 담백한 꽃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했다.

이선희씨는 작품 'Invited Guests'에서 이국적인 인물들을 바탕으로 원시적인 생명력을, 이영민씨는 설치작품 '뜰'로 여백과 간결한 조형미를 선보였다.

참여작가는 류현자·박수옥·백애경·이선희·이영민·임수영·정예금·정정임·정참·조수경·채경남씨 등이다. 문의 062-222-801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채경남 작 '겨울을 걷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2가 10번지 (구.동구청 골목)
한정식전문 단체손님예약환영
대표 이미자
☎(062)225-927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고전방
동구 궁동 34-4번지 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서양화,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서양화 매매 및 감정
고미술품 전문
대표 박환승
☎(062)222-6866

황금당
동구 황금동 90번지
예물, 순금, 시계 및 고급품목일체
☎(062)232-6453

바위섬횟집
쌍촌동 1346번지 호반3차@정문건너 먹자골목
각종회전문 참숭어유비끼,참돔유비끼(하루전예약)
우럭지리매운탕, 초밥
(연말예약받습니다)
☎(062)372-4224

광남공인중개사
북구 유동 15-14번지 2층 유동로타리
광주전지역부동산
분야별매수,매매취급 전문 및 상담
대표 최승권
☎(010)2363-6996

엘리체공인중개사
북구 용봉동 용봉엘리체상가 103호
분양권, 아파트, 상가, 토지 매매및임대
계약에서 등기까지
대표 나정자
☎(062)529-6100

한우국밥
동구 학동 618-9번지 조대병원응급실입구
한우보양식, 수육등
대표 신명식
☎(062)227-1666

삼각그린이발관
북구 삼각동 그린타운 아파트 상가 108호
염색등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062)574-6583

삼보컴퓨터첨단점
월계동 835-1번지 월계초등학교에서 방통대사이
모든 컴퓨터 수리 전문점
대표 김경모
☎(062)972-3512

행복식당
상무2동 1229 주공@상가
옻오리탕,백숙,오리탕,국밥,백반전문
대표 천정희
☎(062)372-9040

한우암소고깃집
북구 오치동 1036-6번지
한우암소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이지현
☎(062)268-6666

성광상사전남·북총판
서구 매월동 946 매월종합상가 106동 101호
V-평고무벨트, 야성화학오스
소형농기구 수입전문
대표 김승식
☎(062)610-5123

기분좋은극장
동구 금남로1가
공연 제작·기획 / 극단
☎(062)374-3343

월산지역아동센타
서구 월산4동
초등학생,중학생,방과후 학습지도,문화체험학습
무료급식 및 학습, 문화 체험학습
꿈나무들의 보물창고
☎(062)671-5498

빛고을식당
염주동 염주체육관내 국민생활관지하
1등급 암소한우만 취급합니다.
단체 예약손님 환영
대표 고경숙
☎(062)385-3288

보경피부샵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 우산공원맞은편 먹자골목
얼굴경락,전신경락,부분경락,복부관리
좌욕기 무료서비스제공, 손경락합니다
☎(062)261-6616

고운의원
동구 학동 조대병원밑 보문빌딩 2층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원장 윤인산
☎(062)236-0075

경다방
동구 학동 38-3번지 허경룡소아과지하
예술의 찻집
대표 최애란
☎(010)7192-5425

경희한방병원
동구 학동 병무청옆 전대병원응급실맞은편
목,어깨통증,일자목,VDT증후군,경추
요추,추간판,척추관협착증,퇴행성디스크
☎(062)223-9595

The좋은집
북구 오치동 924-20번지
욕실인테리어,누수탐사,설비,판넬,샷시전문
대표 박영권
☎(010)2607-6949

현대하우징광주·전남총판
남구 방림동 524-1번지
한미자연마루, 한미테코타일,앙드레김벽지
대표 백종구
☎(062)654-2299

365부동산
백운동 453 백운휴먼시아 3단지입구 제일@후문
365일 신뢰와 책임중개로 임하겠습니다
☎(011)617-2296

한우짝갈비전문점(첨단점)
광산구 쌍암동 664-6번지 첨단병원옆
한우참숯구이전문, 갈비살, 꽃등심
안창살등 최선의 서비스
☎(062)971-5666

안경타임
화정동 KB국민은행쌍촌동지점옆 화정대주피오레상가
이젠 안경도 패션이 되는 시간!!!
대표 문호섭
☎(062)382-5514